

※ 범위 분석 및 총평

1. 출제 영역별 문항 수

대단원 분류	문항수	출제 영역	
이론 문법	3	음운론	
		형태론	품사(2)
		문장론	높임법(1)
어문규정	2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1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표준어 규정	1
비문학	5	내용 추론(1) / 내용일치(2) / 개요작성(1) / 논리적 구조 파악(1)	
문학	2	고전 문학	시조(1)
		현대 문학	현대시(1)
고전 문학+한자	2	한시+한자(1) 시조+한자(1)	
어휘	6	한자	한자어 표기(2)
		기타	관용구 (1) 단위명사 (1) 문학 작품의 어휘(1) 다의어(1)

2. 총평

이번 지방직 시험은 한자 문제를 포함하여 어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되어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며, 한자성이 문제가 나오지 않고 고전문학을 한자와 함께 출제한 것이 2 문제나 있었다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영역들의 출제 비중은 기존의 시험들과 유사했다.

비문학 영역의 경우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으나 한두 문제 정도 독해하기가 까다롭다고 느낄 만한 것이 있었으며, 문법의 경우는 표준어 문제가 평소에 표준어 규정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구성되어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다른 문법 문제들(품사, 높임법, 한글 맞춤법 등)은 평소에 강조하는 것들을 공부해 두었다면 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다.

9급 지방직 시험에서도 역시나 한자가 강제이며, 어휘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만큼 앞으로 한자와 어휘 공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비문학이나 문학 문제가 많이 출제되더라도 난도가 높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어휘 파트나 문법 파트에서 변별력을 갖게 되므로 문법 역시 꾸준히 공부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문 1. 밑줄 친 말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바닷물이 퍼레서 무서운 느낌이 든다.
- ② 또아리 튼 뱀은 쳐다보지 마라.
- ③ 머릿말에 쓸 내용을 생각해 뒤라.
- ④ 문을 잘 잠궜야 한다.

1. 정답 1번

출제 범위: 한글맞춤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퍼레서’는 형용사 ‘퍼렇다’의 활용형으로, 어간에 ‘ㅎ’ 받침이 있는 형용사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어간 받침 ‘ㅎ’은 탈락하고 어미 ‘-어’는 ‘ㅣ’로 바뀌는 ‘ㅎ’불규칙 활용을 한 형태이다.

<오답 해설>

- ② 또아리 → 따리. 표준어는 ‘따리’이다.
- ③ 머릿말 → 머리말. ‘머리말’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잠궜야 → 잠가야. 기본형 ‘잠그다’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ㅡ’ 탈락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다.

문 2. 밑줄 친 말의 의미는?

몇 달 만에야 말길이 되어 겨우 상대방을 만나 보았다.

- 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 말하다.
- ②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 ③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
- ④ 마음에 당겨 재미를 붙이다.

2.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고유어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말길’은 말하는 길이나 기회를 뜻하는 명사이며, ‘말길이 되다’는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라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문 3.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씹: 바늘 () 개를 묶어 세는 단위
- 제(劑):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 한 제는 탕약(湯藥) () 첩
- 거리: 한 거리는 오이나 가지 () 개

- ① 80 ② 82
- ③ 90 ④ 94

3.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휘-단위명사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씹’은 바늘 24개를 묶어서 세는 단위이며, ‘제’는 탕약 20첩, 거리는 오이나 가지 50개를 묶어 이르는 말이므로 모두 합하면 94이다. $24+20+50=94$.

문 4. 밑줄 친 시어에서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소재는?

- ㉠ 春雨暗西池 /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 羅幕 / 찬바람은 비단 장막으로 스며드네.
愁依小㉢ 屏風 /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 杏花落 /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 ① ㉠ ② ㉡
- ③ ㉢ ④ ㉣

4. 정답 4번

출제 범위: 고전문학-한시

난이도: 상

<정답 해설>

㉢ ‘杏花(행화)’는 담장 위로 떨어지는 살구꽃을 뜻하는 말로, 봄비 내리는 쓸쓸한 날에 방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혼자임을 시름에 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하강적 이미지와 함께 드러내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오답 해설>

- ① ㉠ 春雨(춘우): ‘봄비’는 작품 전체의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 ② ㉡ 羅幕(라막): ‘비단 장막’은 찬바람이 스며드는 공간으로 화자가 쓸쓸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 屏風(병풍): 쓸쓸한 화자가 몸을 기대는 사물일 뿐이다.

문 5.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 너머 성권농(成勸農)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줄테고
아히야 네 권농 겨시나 덩좌슈(鄭座首) 왔다 히여라

- ① 화자는 소박한 풍류를 즐기며 살고 있다.
- ② ‘박차’라는 표현에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언치 노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아히’는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이면서도, 대화체로 이끄는 영탄적 어구이다.

5. 정답 3번

출제 범위: 고전문학-시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된 시조 ‘재 너머 성권농 집의~’는 농촌 생활의 흥취를 노래한 정철의 작품이다.

※ 현대어 해석

고개 넘어 성권농(成勸農)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워 있는 쇼를 발로 박차 등에 깔개를 얹어 올라타고
아히야, 너희 권농 계시나 정좌수(鄭座首) 왔다 아뢰어라

- ③ ‘언치 노하’는 깔개를 얹는다는 표현으로 쇼 위에 안장 없이 깔개만 올렸다는 의미가 되므로 엄격한 격식을 갖추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① 친구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술을 마시러 가는 화자의 모습에서 여유롭고도 소박한 풍류를 즐기는 삶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한가롭게 누워있는 쇼를 발로 박차는 행동에서 쇼의 한가함을 깨고, 친구의 집으로 서둘러 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역동성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 ④ 종장에서 ‘아히’를 불러 자신이 왔음을 알리라는 화자의 말에서 대화체가 성립됨과 동시에 화자가 술을 마시러 찾아왔다는 것을 ‘아히’가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문 6. 밑줄 친 말을 한자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은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 정보화 사회일수록 ㉡유연비어가 떠돌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변명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 | | | |
|-------|------|----|
| ㉠ | ㉡ | ㉢ |
| ① 長廣舌 | 流言蜚語 | 辨明 |
| ② 長廣舌 | 流言非語 | 辯明 |
| ③ 長廣說 | 流言蜚語 | 辯明 |
| ④ 長廣說 | 流言非語 | 辨明 |

6. 정답 1번

출제 범위: 어휘-한자어의 표기

난이도: 상

<정답 해설>

- 長廣舌 길(장) 넓을(광) 혀(설)
「1」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2」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 流言蜚語 흐를(유) 말씀(언) 날(비) 말씀(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 辨明 분별할(변) 밝을(명)
「1」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
「2」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힘.

7. 정답 4번

출제 범위: 현대문학-현대시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잠착하다’는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몰하게 쓰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오답 해설>

- ① 마지막의 ‘山中에 冊曆도 없이 / 三冬이 하이얏다.’에서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임을 알 수 있다.
- ② 2연에서 자작나무를 태우는 불을 ‘붉고’로 표현하고, 3연에서는 무의 손을 ‘파릇하고’로 표현하여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한겨울의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동차를 마시는 노주인의 모습, 불이 붉게 피어오르고 무순이 돌아난 장면, 바깥에 눈이 오는 장면까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문 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老主人의 腸壁에
無時로 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여 붉고,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山中에 冊曆도 없이
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忍冬茶」 -

- ① 산중의 고적한 공간이 배경이다.
- ② 시각적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 ③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 ④ ‘잠착하다’는 ‘여러모로 고려하다’의 의미이다.

문 8.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의 문장을 다음 규칙에 따라 옳게 표시한 것은?

우리말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이 있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경우 높임은 +로, 높임이 아닌 것은 -로 표시하고 상대 높임의 경우 반말체를 -로, 해요체를 +로 표시한다.

- ① [주체 -], [객체 +], [상대 -]
- ② [주체 +], [객체 -], [상대 +]
- ③ [주체 -], [객체 +], [상대 +]
- ④ [주체 +], [객체 -], [상대 -]

8. 정답 1번

출제 범위: 이론 문법-높임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숙희야’로 시작하면서 상대를 부르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이 쓰였는데 서술어가 ‘드렸다’이므로 ‘해라체’가 쓰인 것이다. 해라체가 쓰인 상대 높임은 [상대-]로 표시한다. 동시에 ‘드리다’라는 서술어를 통해 객체 높임이 쓰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객체+]가 되고, 주체 높임은 아예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주체-]로 표시하면 된다.

문 9. '시'에 대한 견해 중에서 밑줄 친 칸트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은?

미적인 것이란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서 더 나아가 삶의 풍부하고 생동적인 양상과 가치, 목표를 예술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다. 미(美)는 어떤 맥락으로부터도 자율적이기도 하지만 타율적이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 이름 모를 곡을 듣고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순수미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곡이 독재자를 열렬히 지지하기 위한 선전곡이었음을 안 다음부터 그 곡을 혐오하듯 미(美) 또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 ① 시는 정제된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
- ② 시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할 수 있고, 개혁의 전망도 제시할 수 있다.
- ③ 시를 읽으면 시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 ④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알아야 한다.

9.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 추론 유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미에 대한 자율적 견해를 지닌 칸트”라고 하였으므로 자율적으로 미를 바라보는 관점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자율적’이란 글의 맨 처음 부분에서 언급한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예술 작품의 특성을 밝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글을 읽으면서 ‘자율적인 것’과 ‘내재적이고 선형적인 작품의 특성을 찾는 것’을 연결하기가 어려웠다면, “칸트도 일견 타당하지만,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도 타당하다.”라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관점을 칸트와 상반되는 관점으로 보고, 이런 상반되는 관점을 선지에서 빼버리면 칸트의 견해와 동일한 관점만 남게 될 것이다.

① 시어와 운율은 시의 내재적인 요소이며, 그런 내재적인 미적 요소를 통해 시를 감상하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자율적으로 미에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

<오답 해설>

② ‘사회적 모순 고발, 개혁의 전망 제시’ 등은 “미를 도덕이나 목적론과 연관시킨 톨스토이나 마르크스”의 견해와 일치한다.

③ ‘정서적 성장의 도모’ 역시 목적을 가진 시 읽기이므로 미(美)를 목적론과 연관시켜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당시의 사회 상황’은 내재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재적인 요소이다.

문 10. 밑줄 친 말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 ㉠ 파적 나올 높은 생겨나도 앉았으리라. 하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러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 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방은 있대야 남의 결방이요 잠은 ㉡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벼를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강산에 늘어 놓인 곡식이 말짱 뉘 것이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냐.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 두고 일이 다 무슨 ㉢ 난장 맛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세 번이나 걸려서 구메밥으로 ㉣ 사관을 틀었다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몫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 김유정, 「만무방」 중에서 -

- ① ㉠: 심심풀이
- ② ㉡: 안잠
- ③ ㉢: 몰매
- ④ ㉣: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10.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휘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새우잠’과 ‘안잠’은 전혀 다른 말이다.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을 의미한다.

안잠: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

<오답 해설>

① ㉠ 파적(破寂=심심풀이):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

③ ㉢ 난장(亂杖=몰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어 때리는 매.

④ ㉣ 사관(四關):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문 11. 다음 시조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내히 조타 하고 늬 슬흔 일 하지 말며
늬이 혼다 하고 義 아니면 좇지 말니
우리논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흐리라

- ① 率性
- ② 善交
- ③ 遵法
- ④ 篤學

11.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문학(시조)+한자어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변계량의 '내히 조타 호고~'는 의(義)를 따라 천성을 지키며 살려
는 의지를 노래한 시조이다. 종장의 "우리는 天性을 직히여 삼긴
대로 흐리라(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켜 생긴 대로 살리라.)"를
통해 타고난 성품을 좇는 것을 뜻하는 '率性(솔성)'이 주제임을 알
수 있다.

※ 현대어 해석

내게 좋다 하여도 남 싫은 일은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도 의(義) 아니면 좇지 말지니
우리는 천성(天性)을 지키어 생긴 대로 살리라.

<오답 해설>

- ② 善交 착할(선) 사귄(교): 잘 사귀.
- ③ 遵法 좇을(준) 법(법):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 ④ 篤學 도타올(독) 배울(학): 학문에 충실함.

☞ 참고

- 독학(獨學):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함.

문 12. 밑줄 친 말이 표준어인 것은?

- ① 큰 죄를 짓고도 그는 뇌연히 대중 앞에 나섰다.
- ②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갖가지 양념을 뒤어내고 있었다.
- ③ 사업에 실패했던 원인을 이제야 깨닫나게 되었다.
- ④ 그 사람은 허구헌 날 팔자 한탄만 한다.

12. 정답 3번

출제 범위: 어휘+표준어 규정

난이도: 상

<정답 해설>

'깨닫하다'는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달거나 분명히 알다.'의 뜻이므로 문맥에 어
울린다.

<오답 해설>

- ① 뇌연히: '버젓이'의 잘못. '버젓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조
심하거나 굽히는 데가 없이.'의 뜻이다.
- ② 뒤어내고: '뒤져내고'의 잘못. '뒤져내고'는 '살살이 뒤져서 들
춰내거나 찾아내고.'의 뜻이다.
- ④ 허구헌: '허구한'의 잘못. '허구한'은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
래인'의 뜻이다.

문 13. 밑줄 친 말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지조란 것은 순일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
기까지 하다. 지조가 교양인의 ㉡ 위의(威儀)를 위하여 얼마
나 값지고 그것이 국민의 교화에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크며,
따라서 지조를 지키기 위한 괴로움이 얼마나 가혹한가를 헤
아리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먼저 그 지조의 ㉢ 강도(強度)를 살피려 한다. 지조가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명리만을 위하여 그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 일조(日照)에 함정에 빠뜨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
는 지도자의 무절제와 배신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
였는가.

- 조지훈, 「지조론」 중에서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3.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휘-한자어의 표기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문맥적으로 "동지와 지지자와 추종자를 하루아침에 함정에 빠뜨
리고 달아나는 지조 없는 지도자"라고 해야 자연스러우므로 '하루
아침, 갑작스러운 정도로 짧은 시간'을 뜻하는 '一朝 한(일) 아침
(조)'로 표기해야 한다. '日照 해(일) 비출(조)'는 햇볕이 내리쬐는
뜻하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 確執 굳을(확) 잡을(집):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
하지 아니함.
- ② ㉡ 威儀 위엄(위) 거동(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③ ㉢ 強度 굳셀(강) 법도(도): 센 정도.

문 14.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개나리꽃이 ㉠ 흐드러지게 핀 교정에서 친구들과 ㉡ 찍은
사진은, 그때 느꼈던 ㉢ 설레는 행복감은 물론, 대기 중에 ㉣
충만한 봄의 기운, 친구들과의 악의 ㉤ 없는 농지거리, 별들
의 잉잉거림까지 현장에 있는 것과 다름없이 느끼게 해 준
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14. 정답 2번

출제 범위: 이론 문법-품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밑줄이 모두 활용하는 용언에 그어져 있으므로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는 문제이다. 전체 문맥에서 현재 진행형 '-나다/-는다'의 형태가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이다.

㉠ 흐드러지게: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성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흐드러진다'의 활용형으로, 현재형으로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가 불가능한 형용사이다.

㉡ 찍은: 현재형으로 '사진을 찍는다'가 가능한 동사이다.

㉢ 설레는: 현재형 '설렌다'가 가능한 동사이다.

㉣ 충만한: 현재형 '대기 중에 충만한다'가 어색하므로 형용사이다.

㉤ 없는: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예외적으로 관형형 어미 '-는'과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 ㉢, ㉤은 모두 형용사이다.

쿤은 이 물음에 대하여 '수수께끼 풀이'라는 대답을 준비한다. 어떤 현상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예측이 달성되는 세세한 과정은 대개 의문 속에 있게 마련이다. 자연 현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서의 예측 결과와 실제의 현상을 일치시켜 보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기기적, 개념적, 수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수수께끼 풀이이다.

- ① 여러 가지 상반된 시각의 학설이 등장하여 이론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
- ② 과학적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다.
- ③ 이 시기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처음에는 불완전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된다.
- ④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

15.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 일치 유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네 번째 문단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②의 내용처럼 과학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론의 핵심 부분들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 ① 네 번째 문단에서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이 정립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학설이 등장하거나 이론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다.
- ③ 두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세계를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측된 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 ④ 네 번째 문단에서 이미 예측된 결과만을 좇을 수밖에 없다는 했지만, 그로 인하여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이 낮아진다는 언급은 없다. 오히려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마지막 문단에서 '수수께끼 풀이'라는 것을 소개했다.

문 15.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형성은 당초에는 불완전하며, 다만 이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소수 특정 부분의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정착은 연구의 정밀화, 집중화 등을 통하여 자기 지식을 확장해 가며 차츰 폭넓은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을 쿤은 '정상 과학'이라고 부른다. 기초적인 전제가 확립되었으므로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상당히 심오한 문제의 작은 영역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자연의 어느 부분을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각종 실험 장치들도 정밀해지고 다양해지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특정 기법과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연구는 이제 혼란으로서의 다양성이 아니라, 이론과 자연 현상을 일치시켜 가는 지식의 확장으로서의 다양성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정상 과학은 완성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과 관습, 기법 등이 하나의 기반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일 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수하다. 패러다임이란 과학자들 사이의 세계관의 통일이 지 세계에 대한 해석의 끝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연구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좇아가지는 않으며, 다만 연구의 세부 내용이 좀 더 깊어지거나 넓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성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연구가 고작 예측된 결과를 좇아갈 뿐이고,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라고 규정되는 상태에서 과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 16. '잡다'의 유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어	예문
죽이다	㉠
쥐다	㉡
어렵하다	㉢
진압하다	㉣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③ ㉢: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16. 정답 3번

출제 범위: 어휘-유의어와 다의어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의 의미인데, 제시된 예문 '술집 주인은 손님의 시계를 술값으로 잡았다.'의 '잡았다'는 '담보로 맡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어렵하다'와 유의어가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 할아버지는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 '짐승을 죽이다.'의 의미이므로 '죽이다'와 유의어이다.
 ② ㉡: 그들은 먹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
 ▶ '손으로 움키고 놓지 않다.'의 의미이므로 '쥐다'와 유의어이다.
 ④ ㉣: 산불이 난 지 열 시간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다.
 ▶ '기세를 누그러뜨리다.'의 의미이므로 '진압하다'와 유의어이다.

문 17.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출려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

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인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 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②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7.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내용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조간대의 중부가 어떤 환경인가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그곳에 사는 생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마지막 문단에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라고 했으므로 총알고둥류가 사는 곳은 상부임을 알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라고 서술했으므로 높이에 따라 수직 분포하는 이유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조간대의 상부, 중부, 하부의 환경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높이에 따라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문 18. 다음의 개요를 기초로 하여 글을 쓸 때,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론 : 최근의 수출 실적 부진 현상

본론 : 수출 경쟁력의 실태 분석

1. 가격 경쟁력 요인

ㄱ. 제조 원가 상승

ㄴ. 고금리

ㄷ. 환율 불안정

2. 비가격 경쟁력 요인

ㄱ.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

ㄴ. 품질 개선 부족

ㄷ. 판매 후 서비스 부족

ㄹ. 납기의 지연

결론 :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① 정부가 수출 분야 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②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 ③ 기업이 연구 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8.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개요 작성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주제문’을 찾는 문제이므로 개요에서 다룬 내용을 포괄하는 문장을 찾아야 한다. 개요의 내용은 최근에 수출 실적이 부진한 현상을 지적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가격·비가격 요인으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분석과 그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제문으로 적합하다.

<오답 해설>

- ① 개요에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가 할 일은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 ② 결론에서 수출 경쟁력을 향상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핵심은 ‘수출’에 있어야 하며 ‘내수 시장의 강화’는 결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된다.
- ③ 기업의 연구 개발 소홀이나 품질 개선 부족 등의 문제는 일부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내용 만으로 주제문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 19.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그쪽에서 물건 하나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건 ㉡ 우리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 저는 할머니의 유지에 따라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 할머니께서는 ㉠ 본인의 생각을 저에게 누차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지요. ㉤ 당신께서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실히 आरोसा겨져 있을 거예요.

- ① ㉠과 ㉢은 1인칭 대명사이다.
- ② ㉡은 ㉢과 ㉣을 아우르는 말이다.
-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과 ㉣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19. 정답 3번

출제 범위: 품사-대명사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③ ㉣ ‘당신’은 선행하는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대명사이므로 ㉢ ‘할머니’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 ‘그쪽’은 지시 대명사이며, ㉢ ‘저’는 1인칭 대명사가 맞다.
- ② 화자를 포함하는 ㉡ ‘우리’가 역시 화자를 지칭하는 ㉢ ‘저’를 아우르는 말은 될 수 있어도, ㉢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 ④ ㉢ ‘본인’은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이며, ㉣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문 20. 다음 글의 논증 구조를 옳게 파악한 것은?

㉠ 동물들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동물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못지않은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즉, 동물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다를 바 없이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듯하다. ㉢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모습의 유사성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동물들이 사용하는 소리는 단지 배고픔이나 고통 같은 생물학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이거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본능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때때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와 같은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① ㉠은 논증의 결론으로 주제문이다.
- ② ㉡은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한 것이다.
- ③ ㉢은 ㉠, ㉡을 부정하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한 것이다.
- ④ ㉣은 ㉢, ㉣에 대한 근거이다.

20.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논리적 구조 파악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③ ㉢은 ㉠, ㉡에서 말한 동물도 사람과 유사한 의사소통 수단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부정하고,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의 결론은 ㉣이다.
- ② ㉡은 ㉠을 환언(換言)한 문장으로, ㉠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서술한 문장이다.
- ④ ㉣은 ㉢, ㉣을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린 문장이다.